

03

**곰팡이가 발생한 곤포 사일리지를
가축에게 급여해도 되나요?****■ 곰팡이가 발생한 곤포 사일리지는 가축에게 급여해서는 안 됨**

- 발생한 곰팡이의 모양이나 분포 양상만 보고는 어떤 곰팡이인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오염된 곤포는 급여하지 말아야 함.
- 혐기 발효가 잘된 곤포 사일리지는 상큼하고 약간 시큼한 향이 나지만 악취가 발생할 경우 급여하지 말아야 함

■ 가축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곰팡이 독소의 종류

- 가축에 해로운 곰팡이 독소(마이코톡신)에는 aflatoxin B, zearalenone (ZON), fumonisins(FBs), moniliformin(MON), Trichothecenes, T-2 toxin, ochratoxin A 등이 있음

■ 곰팡이 발생 곤포 사일리지의 취급 주의

- 곤포 사일리지에서 분리된 다양한 곰팡이는 호흡을 통해 포자를 흡입한 경우 폐렴이나 천식을 유발하고, 피부 병변, 결막염 등 다양한 진균 감염증을 일으킬 수 있음
- 오염된 곤포사일리지를 취급 할 때에는 마스크, 작업복 등 보호장비를 잘 갖추고 작업 후에는 잘 씻는 등 주의를 요함

■ 곰팡이 발생 예방을 위한 곤포 사일리지 제조 요령

- 곤포 사일리지 제조 시 비닐을 적게 감아 완전한 밀봉이 안 됐거나, 현장에서 농장이나 창고로 운반하는 과정 중 파손되거나, 파손부위가 비를 맞게 되면 곰팡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음
- 곰팡이 발생을 예방하려면 곤포 작업 시 흙이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 주어야 하며, 곤포 후 바로 랩핑(비닐감기)해 주어야 함
- 랩핑 시에는 4~6겹 이상으로 튼튼히 감아 완전한 밀봉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, 파손된 부위는 즉시 테이프로 완전히 밀봉해 주어야 함
- 찢어진 부위가 클 경우에는 신속히 비를 맞지 않게 조치하거나 가급적 조속히 급여해 주어야 함